

현 장 방 문 결 과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 ☐ 방문일시 : 2005. 3. 30(수) 11:40~14:10
- ☐ 방문의원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손홍섭 외 8명
- ☐ 방문대상 : 문화예술회관
- ☐ 방문결과

〈문화예술회관〉

- ☐ 지적 및 건의사항
 - 공연시 민간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에서 직접 주관하여 일반시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강구하기 바람.
 - 관내 고3 수험생을 위한 입시 설명회를 학교별로 회관에서 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시민들이 공연장 이용시(대관 등)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시립교향악단 설립 문제를 전문가 및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향적으로 검토 바람.
 - 건축물 노후장비 및 시설물 개보수가 요망됨.

◆ 현장 대화내용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장 김재권 (업무추진현황 설명)

○위원장 손홍섭 평소 생각했던 것과 현황보고 받은 후 발전방향이 나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람.

○허복 위원 얼마 전에 명성황후 공연을 했는데 공연시 관람객 정원은 몇 명이었나?

○문화예술회관장 김재권 1,364석임.

○허복 위원 정원이 다 찼는가?

○문화예술회관장 김재권 적자를 봤음. 무궁화엔터테인먼트에서 했음. 1억 적자가 났다는 얘기를 함. 첫날은 반정도 비었음.

처음 기획사측에 R석 88,000원이 너무 비싸다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R석 88,000원, S석 77,000원, B석:55,000원식으로 했는데 25일날 되니까 표가 안팔려서 큰일났다 하면서 기획사 측에서 얘기를 했음. 25일날 이전에는 초대권도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음. 그래서 표가 안 팔리는 상태에서 초대권 얘기도 못 했음.

○허복 위원 제 얘기는 초대권을 챙겨 달라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런 것 우리 위원님들 바라지도 않음.

관장님이 주관해서 한 것이 아니고 민간이 했는데 4회 공연에 다 관객이 찼느냐는 것임. 공연전에 사람이 너무 없어서 공무원이 동원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문화예술회관장 김재권 표가 안 팔려서 얼마씩 받고 시에 1,000매 팔았다는 얘기를 기획사측에 들었음.

○허복 위원 대관료는 얼마를 받나?

○문화예술회관장 김재권 1일 평균 100만원 정도 받음.

○허복 위원 입장수익에 10% 받나?

○문화예술회관장 김재권 순수 예술은 대관료만 받고, 대중예술은 10% 관람료를 받음.

○허복 위원 훌륭한 작품을 민간에 의존만 하지 말고 시에서 직접

작품을 가져와서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함. 비싼 작품이 들어오면 시민들 위화감만 조성하고 자리는 비어 있고 한테 민간에만 의존하지 말고 관장님이 직접 주관해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 했으면 함.

○문화예술회관장 김재권 그러겠음.

○허복 위원 아무리 홍보해도 88,000원 주고 누가 보겠는가, 그런 것은 많은 객석이 있는 체육관에서 해서 싸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 유치하는 것은 가격을 싸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함.

○문화예술회관장 김재권 그러겠음.

○전인철 위원 민간업체에서 수익 차원에서 했는데 적자를 보게된 원인을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분석을 해 봐야 한다고 봄.

김천은 유료관람을 해서 수익을 얻었다고 함.

○문화예술회관장 김재권 우리시에서 유료로 전에 했음. 1억주고 가져와서 최저 18,000원, 최고 25,000원으로 했는데 조금 적자가 났음. 적자난 부분은 시에서 일정부분 부담을 한다고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적자는 조금 났음.

김천도 2~3년전에 했음.

○전인철 위원 적자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은 시에서 무료를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문화 부분에 투자를 안하고 예술회관은 공짜가 아니면 안 가려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임. 이번 공연이 흥행에 실패한 원인을 자세히 분석 해 주기 바람.

○문화예술회관장 김재권 금액이 88,000원은 구미로 봐서는 너무 비싸고 평균 6만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저희들은 얘기를 했는데 그 대로 했음. 대구에서도 이번에 공연을 하는데 88,000원으로 하는데 구미에서 낮추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대로 했음.

첫째, 금액이 88,000원이 너무 비싸고.

둘째, 오페라, 뮤지컬은 문화수준이 대구보다 뒤떨어진다고 분석이 됨.

○전인철 위원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덧붙여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고3 수험생들 수능을 마치고 나면 수능 준비에

고생을 한 학생들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무료공연이나 무료영화 등을 보여 주면 좋겠고.

둘째, 입시설명회도 학교별로 회관에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함.

○문화예술회관장 김재권 수능생을 위한 프로그램 영화라든지 이런 것을 매년 했는데 올해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행정기관에서 무료로 못하게 되어 있음.

○허복 위원 입시설명회는 어떤가?

○문화예술회관장 김재권 입시설명회는 검토해 보겠음.

구미에 학교가 많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하기는 힘이 들겠지만 단위별로 묶어서 하는 것은 검토 하겠음.

○위원장 손홍섭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또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아쉽게도 공연장을 이용하려면 문턱이 높다는 시민 여론이 있는데 문턱이 높은 이유는 관장님이 예술회관 운영방식 때문에 높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적은 직원으로 회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지만 문턱을 낮추는 방향이 없는지? 둘째, 매점운영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는 누가 어떻게 운영하며 각종 행사시 도우미 운영을 하는데 도우미 모집과 거기에 따른 설이 무성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차원에서 묻는 것임.

셋째, 기획공연할 때 개인이 운영하는 마인드하고 직업 공무원의 마인드가 다르다고 보는데 회관을 시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넷째, 직원들과의 관계인데 적은 인원으로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관리자 입장에서 사고가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과제시 물적지원을 해서 효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고, 직원들과 관계개선을 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기 바람.

○문화예술회관장 김재권 문턱이 높다는 부분은 공감함. 1년에 2번 정기 대관신청을 받음. 올 상반기 같으면 작년 11월에 신청을 받고 올 하반기는 5월에 신청을 받음. 전국적으로 소문이 구미문화예술회관은 아동극을 제일 잘한다는 소문이 났음. 아동극이 상반기 신청

이 20건 이상 신청이 들어오면 원칙은 1달에 1건 아동극을 원칙으로 하면 상반기 6건밖에 할 수 없음. 심사는 담당계장 실무진을 구성해서 어느 기획사 어디에서 하는지 그 부분 서류를 안 보이게 해서 자료를 받아서 직원들이 어느 기획사에서 하는지도 모르고 심사를 해서 1건을 택해서 하는데 25건 신청이 들어오면 상반기 6건 하면 19건은 떨어짐 그러니 시민들이 대관이 안 된다는 무성한 말이 나옴.

거의 유치원, 유아원에서 빌려달라고 얘기하는데 발표회 때 자기들 유치원이나 유아원에서 해도 되는데 자기들 실적 남기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만약 1개 유치원에 빌려주게 되면 구미 전체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다 빌려줘야 하기 때문에 못 빌려주는 실정임. 유치원이나 유아원 초·중·고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일반 개인이 자기 취미로 빌리겠다고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관에서 운영하는데 개인 아무나 빌려주게 되면 문제가 있음. 개인 독주회 한다고 대관하려고 해서 반려한 경우도 있음.

매점은 입찰해서 했는데 당초 700여만원에 입찰을 했다가 1주일도 못 되어서 포기를 했음. 타산이 안 나와서 못한다고 했음. 매점과 공연장 통로가 있는데 평소 막아놓고 있음. 음식물 반입이나 통제가 어려워 막아놓고 있는데 자기는 문을 개방해 줄줄 알았는데 안해 준다고도 하고 운영에 어려워서 포기를 했음. 이번에 금액을 낮추어서 300만원에 했는데 과자 판매해서 하루에 7,000원 10,000원 나온다고 함. 민간인 운영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관장 생각도 관보다는 민간이 하는 것이 좋다고 봄. 전국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곳이 많음. 또 관장은 민간인한테 촉탁을 하고 밑에는 공무원이 하는 그런 곳도 있고, 구미도 시민 불편이 없게 해서 바꾸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

현금자동지급기는 당초 제가 관장으로 오기 오래전에 외환은행에서 설치했는데 제가 와서 외환은행 관계자를 만나서 철거하라고 하기도 했는데 다시 주위에 환경도 좋게 시설을 했음. 처음 설치시 다른 은행에서 항의가 있었는 것 같음.

○위원장 손홍섭 보는 시각차이인데 일반 시민들은 공연이나 전시를 보면 2005년 공연계획이 총9건, 전시 6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예술

회관 자체 활용도가 낮다고 보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안된다 하니까 행정편의로 업무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시민들이 하는 것임.

예를 들어서 순천향병원 옆에 아파트 재개발을 하는데 병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옆에 통로를 만들고 해서 병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예술회관은 매점 출입로 통제를 하니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니 매점측에서 오해할 수 있다라고 보여짐. 그런 문제도 음식물을 공연장에 가져가는 것을 통제는 해야 되지만 접근성을 높여야 되는데 차단을 하니까 문턱이 높다는 얘기를 하는 것임.

입에 담지 못할 얘기도 듣고 있음. 그만큼 관장님이 행정 편의로 생각한다는 얘기임.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꿔줘야 한다는 것임.

○문화예술회관장 김재권 1월에서 3월까지의 공연이 많이 없는 상태인데 예술회관에 연간 152회 공연이 있는데 그것은 순수한 공연 날짜만 잡은 것이고 예를 들어서 명성황후를 하면 2~3일전부터 무대시설을 하고 끝나고 그 이튿날 철거를 해야 하는데 152일 같으면 앞뒤로 설치와 철거하는 날을 치면 계속 이어지는 상태임. 2003년도 이전에는 1월에서 3월까지 거의 없었는데 지금 9건을 했음.

○위원장 손홍섭 물론 요전에 했던 독도사수컬기대회나 계획에 없었던 행사가 있을 수는 있음. 그 외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시민들 입장에서서는 아니라는 얘기임.

○문화예술회관장 김재권 빈 날짜가 있으면 수시 대관을 함.

○위원장 손홍섭 시민들의 소리가 난다는 것을 유념하라는 것임.

○문화예술회관장 김재권 알겠음.

○이상진 위원 예술회관을 찾는 시민들이 구미가 다른 예술회관에 비해서 뒤떨어진다고 말하는데 운영상 문제인지 아니면 홍보 미흡인지? 타지역보다 예산이 부족해서 인지 말씀해 주기 바람.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면 문제점은 없는지?

○문화예술회관장 김재권 그런 얘기를 듣고 있음. 경상북도에 구미, 포항, 김천, 성주에 예술회관이 있는데 김천보다 뒤떨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있음.

예산이 공연 1건에 김천은 3억도 하고 기획공연에 10억임. 구미는 1억1,000만원임.

첫째, 수준 높은 공연을 추진하려면 사와야 됨. 명성황후가 2억임. 이런 대작을 사오면 다른 공연을 할 수 없음.

김천은 올해 시립교향악단 운영예산이 3억임. 경북에 시립교향악단은 포항밖에 없다가 이번에 김천이 생겼음.

구미도 빨리 생겨야 될 입장임.

시립국악단도 김천에는 있음. 올해 국악단도 되도록 노력하겠음. 시립교향악단이 없으면 좀 그림.

○위원장 손홍섭 내탓은 아니고 남의 탓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마인드를 바꾸어야 함.

○문화예술회관장 김재권 죄송함.

그런 뜻은 아니고 어떤 일을 하다보면 예산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임.

○위원장 손홍섭 예산도 반드시 관철시키려면 상임위원회나 의원들 찾아다녀야 되는데 안되면 그만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으면 부시장이나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뛰어다녀야 함.

○문화예술회관장 김재권 노력하겠음.

○위원장 손홍섭 시립교향악단 설립 문제는 전문가나 집행부 또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바람.

○문화예술회관장 김재권 그러겠음.

현 장 방 문 결 과 보 고 서

(산업건설위원회)

□ 일 시 : 2005. 3. 30(수) 10:30 ~ 12:00

□ 장 소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현장(옥계동 시립공동묘지 뒤편)

□ 참 석 : 9명(이강덕위원 • 정재화위원 • 문영덕위원 • 임경만위원 • 임성수위원
• 정성기위원 • 황경환위원 • 이정석위원 • 박배원의원)

□ 방문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

○ 왕성한 증식력으로 피해목 확산 우려

- 매개체인 솔수염하늘소의 박멸대책 수립
 - 솔수염하늘소의 활동범위내의 철저한 방역
 - 재발방지를 위한 피해목의 철저한 관리
 - 항공방제 및 수간주사 등 입체적인 방제대책 수립시행
 - 천적개발 및 저항성이 강한 대체수종으로 갱신
- 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동시다발적인 방제로 미흡
 - 방제단 운영인력 충원
 - 소요예산 추경확보
- 재선충병 피해 심각성 및 방제현황 홍보철저 : 시민 관심 유발

○ 예찰활동 강화로 발생초기단계 방제미흡

- 예찰인원 확충으로 초기방제 및 확산방지

□ 주요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황 설명

- 이강덕 위원 : 비닐로 덮어 놓은 것은 뭔가?
- 산림과장 최규중 : 훈증작업을 하는 것으로 벌채목에 약재를 묻힌 비닐을 씌어놓으면 햇빛을 받아서 가스가 발생이 되고 그 가스로 인해 유충이 박멸이 됨. 보통 1주일 기간이 소요되는데 우리는 철저한 방제를 위해 1년 정도 예치를 하고 있음.
- 임성수 위원 : 일본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포기했다고 하던데 그러한가?
- 산림과장 최규중 : 일본에서는 1905년 발생이 되어서 50년 동안 연구를 하느라고 방치하다가 확산을 막지 못했었음.
- 임성수 위원 : 실무진과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앞서 설명한 방제종류 중 어떤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
- 산림과장 최규중 : 소각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함.
- 임성수 위원 : 항공방제가 가장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로 항공방제쪽으로 할 계획은 없는가?
- 산림과장 최규중 : 항공방제는 방제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음.
소나무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우화하는 5~7월달에 5회 계획되어 있음.
- 임성수 위원 : 지금 실질적으로 방제하는 것은 솔수염하늘소를 방제하는 것인가?
- 산림과장 최규중 : 그러함.
- 임성수 위원 : 본 위원이 볼 때는 항공방제 위주로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음.
-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 일본에서는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포기한 상태임.
1988년 부산에 상륙을 해서 현재 전라남도까지 확산이 된 상태임. 포항과

구미에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지 못하면 우리나라 전역으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구미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음.

○ **임성수 위원** :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에만 피해를 주는가?

○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 잣나무, 리기다 등은 저항성이 강해서 피해를 입지 않고 있음.

○ **임성수 위원** :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확보 계획은 어떠한가?

○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 인건비 2억 정도 부족하며 예비비에서 1억 선집행을 한 후 추경에 다시 1억을 세워야 함. 1년 내내 방제가 필요한 현실임.

○ **박배원 의원**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 소나무 잎이 밑으로 처져 있으면서 말라있는 것으로 구분을 함.

○ **정성기 위원** : 예방차원의 항공방제가 가능한가?

○ **산림과장 최규종** : 지금 시행하는 것은 방제임. 예방차원이 아님.

○ **정성기 위원** : 방제를 하게 되면 다 박멸이 되는가?

○ **산림과장 최규종** : 100% 방제가 되는 건 아님.

○ **정성기 위원** : 항공방제 시 인근농가의 가축에는 해가 없는가?

○ **산림과장 최규종** : 미리 농가에 연락 후 방제를 하고 있지만 항공방제 후에 차 도색비를 변상하는 경우가 있음.

○ **문영덕 위원** : 일본에서 10년간 연구를 했는데 포기를 했다면 천적이 없다는 얘기인가?

○ **산림과장 최규종** : 우리나라에서는 연구가 안 되어 있음.

임업시험장에서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고 우리는 지시대로 방제를 하고 있음.

솔수염하늘소 개체수가 결과적으로 많지 않음으로 해서 아직 천적이 발견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됨. 현재 연구를 하고 있음.

- **이강덕 위원** : 산림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작업현장을 보니까 산이 거의 벌거숭이가 되어 있는데 방제를 하면서 인력이 투입이 되면 안전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만약의 경우 사고가 날 경우 보험 등 피해보상에도 신경을 써주기 바람. 또한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예비비를 사용할 생각을 말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바람. 소나무재선충병은 예찰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했으므로 예찰활동에 전력투구 하고 작업인부 간 알력이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람.
- **문영덕 위원** : 벌채한 곳에 장마가 시작되면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는데 물꼬를 트고 재선충병에 강한 잣나무 등을 식재하기 바람.
- **산림과장 최규종** : 산사태 문제는 신경을 쓰고 있음. 잣나무는 내년에 식재할 계획임.
- **정성기 위원** : 벌채목을 펄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한가?
- **산림과장 최규종** : 벌채목 유출은 안 되며 바로 소각을 하거나 훈증을 하도록 되어 있음.
- **이강덕 위원** : 유인물에 시비 8,3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는 안 됨. 기획실에서도 배석을 했는데 예찰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하는 데 신경써 주기 바람.
- **임성수 위원** : 산림청에서 국비가 지원되어 방제를 하는데 일본처럼 수종을 갱신할 계획은 없는가?
- **산림과장 최규종** :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소나무가 대표적인 향토수종이고 상록수로써 산소공급을 해 주는 유일한 수종으로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실정임.

○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 지구가 온난화 되어 가고 아열대성 기후 변화로 점차 침엽수가 소멸하고 활엽수로 대체되어 가는 단계에 있다고 일부 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음.

○ **임성수 위원** : 방제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 **선산출장소장 조훈영** : 다행히, 리기다 같은 좋은 감염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산불방제는 엄두도 못낼 정도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